

이렇게 들었다

재해예방

"다리를 놓고 등불을 다는 까닭"

씨랜드어린이 수련원 참사를 비롯 롯데월드 천장 돔 유리파열사고, 휴양림 수련장 샤워실수기 폭발사고 등 안전불감증이 빚어낸 각종 사건 사고가 연이어 일어나고 있다. 앞으로 무더운 여름을 지나는 동안 일어날 잠마 태풍 등 기상재해와 휴가지에서 발생할 갖가지 안전사고 등 미리미리 점검하고, 조심하지 않으면 안될 돌발적인 상황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

지난해 전국을 강타해 12만명이 넘는 이재민을 발생시켰던 수해도 역시 재난 예방에 대한 철저한 준비 없는 우리 모두의 무관심이 한몫해 일어난 인재(人災)였다. 재난 예방을 위해 부처님께서는 어떤 가르침을 하셨는지 경전의 말씀을 통해 살펴본다.

(편집자 주)

■ 방중한 마음으로 사업에만 집착하여 오욕에 빠져 정신이 혼미해진 사람은 물고기가 그물에 들어가 괴로움을 당하듯이 자신의 과보있음을 의연하고 교만하다가 그만 다하면 눈물지으며 큰 고통 받으리라. <별역잡아함경>

■ 작은 악을 대단치 않게 알아 재앙이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물방울은 작지만 시간이 흐르면 차츰 큰 그릇을 채우고 만다. <열반경>

■ 보살은 보리도를 수행할 때 길을 잃은 종사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 주며, 길의 와석(瓦石)과 가시덤불을 제거하며, 건너야 할 물이나 험한 곳에 다리를 놓으며, 어두운 곳을 위해 등불을 단다. <대집경>

■ 미래세에 선남자 선여인이 있어 지장 보살의 형상을 보거나 이 경을 듣거나 독송하고 향, 꽃, 음식, 의복, 보배 등을 가져다 보시 공양하고 찬탄하여 우러러 예배하

면 우난을 당할 때 신들의 보호를 받고,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질병에 걸리지 않으며 흉수나 화재의 재앙이 근접치 못하고, 도적으로부터 액란을 당하지 않으리라. 또한 총명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게 될 것이다. <지장보살본원경>

■ 인간은 자연을 이용하기를 끝없이 꽃가루를 채집하듯 하다. 끝없이 꽃의 아름다움이나 향기를 다치는 일이 없듯이 사람도 자연을 이용할 때 자연의 풍요로움이나 아름다움을 오염시켜서도 안되며 자연에게서 회복력과 활력소를 빼앗겨서도 안된다. <법구경>

■ 세상에 재앙이 있고 일기가 고르지 못해 흉년이 들어서 사람들이 굶주린 나머지 고향에 안주하지 못하고 등을 돌려 도망치고자 할때는 마땅히 비심(悲心)을 일으켜 곡식창고를 열고 가난한 삶을 일시적으로 도와줌으로써 그 목숨을 건져 본토에 안정

해 살도록 해야 한다. <아난사시경>

■ 쓸쓸한 길에 우물을 파며, 과수를 심어 서늘한 숲을 이루며, 다리 놓고 배 만들어 사람 건네며, 보시를 행하고 계를 닦으며 지혜있어 곧 탐심 버리는 이는 공덕이 방앗으로 증장되어 언제나 천계에 태어나리라. <승기율>

■ 사람이 악을 행하는 경우 그 재앙을 자초하는 것 뿐이어서 부모 형제 종족이 그 죄를 대신해 받아주는 것은 아니며, 악을 행하지 않는 경우 그 복을 스스로 받는 것 뿐이어서 부모 형제가 그 기쁨을 대신 해 주는 것도 아니다. <술유경>

■ 소 처는 다리아가 말했다. "나는 이미 밭도 짓고 우유도 짜 놓았습니다. 마히강 기슭에서 나는 처자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내 몸뚱이 지붕이 덮여 있고 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이여, 만일 비를 내리시려거든 비를 내리시옵소서." <순티니파티>

목소리



일면 조계종 교무원장

1999년, 1900년대의 마지막해인 올해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참으로 반가운 불사소식을 접했다. 1900년대 즉 근세100년을 살다가신 큰스님들을 기념메달로 제작해 기린다는 것이다. 그것도 문중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국조계종총회 주최로 해 벌이는 문화행사라니 더욱 큰 울림을 받았다. 만공 한암 한영 용성 스님 등 범법한 들어도 환희심이 솟는 큰스님들이 다시 이승으로 나부시는 듯한 감동을 받게 된 것이다.

직접 친견하지 못한 스님 또 가까이서 가르침을 받은 스님 등 강원 선원생활에서나 모든 수행공간에서 끊임없이 경책을 주신 큰스님들이 기념메달로 나부셔서 다시 가까이 만날 수 있구나 큰 기

메달로 다시오신 큰스님

대감으로 한 세트를 소장했다.

부처님 말씀에 시공이 따로 없고 시간 역시 인류가 정한 개념상의 약속이지만, 100년 한 세기를 보내는 이즈음은 뒤돌아보고 의미를 새기게 되는 때이다. 지난 100년은 특히 우리 민족에게는 질곡의 역사였다. 나라를 침탈당하고, 배고픔에 시달리고 물결이 밀려드는 서해동풍의 대세 속에서 가치체계의 전도 등 부침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 국민이 어려울수록 정신적인 지도자의 그림자는 넓고 크다. 독립운동 항일투쟁 정신교육의 방편으로 시절시절마다 큰스님들은 민초들과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큰 버팀이 되신 것이다. 이제 외환위기로 국민들의 마음이 낙담하지 않는 현실이다. 근세 고승 기념메달로 다시 오신 큰스님들이 국민들의 고달픈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고 희망과 용기를 주실 것이라고 생각된다. 무엇보다 근세 100년 한국불교 인문학이 정리된다는 것이 여간 뜻깊은 일이 아니라고 본다.

열린마당

특별린 단군상



◇목이 잘려나간 경기도 여흥초등학교내 단군좌상. 민족정신의 시조로 보지않고 단순한 위상으로 여기는 일부 기독교 광신도들의 소행으로 여겨져 충격 여파가 확산되고 있다.

경기도 여주군의 중학교와 초등학교 3곳에서 지난 4일밤과 5일 새벽 사이 학교 운동장에 세워져 있던 단군(檀君) 좌상의 목이 처참하게 잘려나간 국민들께 충격을 주고 있다. 단군 좌상은 한민족의 동원력이 흥취인간의 교육이념과 건전한 민족정신 함양을 목적으로 전국 380개의 초·중·고교에 세운 것. 그러나 단군상 봉안에 대해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

일부 개신교 단체들은 위상상배라는 이유를 들어 철거를 거세게 주장해 왔다. 이번 사건에서 지난해 6월 제주 원명선원의 750구 불상의 목이 잘려나간 악몽을 떠올리는 불교계는 일부 기독교 광신도들이 또 불상파손 등의 행위를 일으킬까 우려하며 경찰이 철저한 조사를 해주기를 요구하고 있다. 단군상 파괴에 대한 각계 의견을 듣는다. <편집자 주>

● 단군신화는 일연스님이 집필한 <삼국사>에 기록돼 있는 백의민족의 자랑스런 이야기이다. 그런만큼 단군시조를 모시는 것은 이교를 떠나 민족의 얼과 혼을 찾는 것과도 결별해 있다. 그러므로 최근 흥취인간의 교이념과 민족정기를 바로잡기위해 각 학교 단군상을 건립하는 것은 잘한 일이다.

이런 여주지역 초·중·고 3개교에 모셔진 단군상의 목이 잘려나간 사건은 자기민족 뿌리를 뒤엎고 타도의 대상으로 삼는 일! 기독교단체의 아만적인 행위로, 민족의 기를 조장하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위이다. 이 세계에 수많은 민족종교 시조상은 민족은 하나도 없다. 단군시조를 위상으로 삼는 것은 종교적인 억지일 뿐이다. 기독교도 성경도 이스라엘의 조상과 신화가 나와있다. 이스라엘 민족신화는 철저하게 믿으면서 리민족의 신화를 믿지 않는 것은 가깝게는 아버지 아버지도 믿지않겠다는 것밖에 안다.

이런 상황에서 민족을 운운하고 화합 평화주 통일 인권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모두 선임을 지적한다. 그리고 우리불교계도 이 일을 계기로 종단과 불자들이 나서서 민족기를 살리는 단군상 건립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외세력의 매국행위를 엄단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지선스님(불주위 상임대표) ● 단군상 건립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특종교의 시설물을 공공기관 학교에 세울

수 있는나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여러 종교립학교가 신앙대상의 시설물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들도 모두 없애야 하는 것인지 그들에게 물고 싶다. 이번 훼손 사건은 한국인의 민족정신의 상징으로서의 단군과 종교 상징으로서의 단군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의 소행으로 본다. 어느 종교든지 한국인으로서의 사회문화적 상황과 자기 종교의 가르침과의 접촉을 고민해야 한다. 이 고민이 없는 종교와 종교인은 성숙한 종교 종교인으로 성장할 수 없다.

종교지도자와 종교학자들은 질 높은 사상을 정립해 신도들과 우리 사회 구성원들에게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종교는 우리 사회발전의 손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것이다. <윤원철(서울대 종교학과 교수)>

● 우리 사회는 모든 종교와 관념이 공존하는 사회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사상이나 상징물을 해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부모를 해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단군상은 그것이 종교 숭배물인 평범한 상징물이든간에 지켜져야 한다. 단군신앙은 신앙

으로서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사회통념상 지켜져왔다. 그런 상태에서 다른 종교나 사회통념이 자신의 종교가치와 다르다고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그 종교가 나쁘다고 보다는 그것만 신앙생활에서 비롯됐다고 보아야 한다. 이같은 행위는 그 종교집단을 폐쇄적으로 만들기 쉽다. <오종근(호원대 경영학과 교수)>

● 단군신화는 우리 민족의 정신적 바탕이었기에 초등학교에서도 가르치고 있다. 일연스님이 쓴 <삼국유사>에 기록된 단군설화는 인간세상을 교화시키고 인간을 널리 이익되게 한다는 흥취인간의 건국이념을 표방하고 있다. 따라서 각급 학교에서 단군상을 기증받아 세운 것은 인성교육 및 역사교육의 측면에서 유익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민족정기의 상징으로 세운 교육시설물을 '종교적 이단'으로 과잉관심해서 목을 잘라내는 어른들의 행태를 보고 어린 학생들이 무엇을 배울지 걱정된다. 단군상 건립이 문제가 된다면 법적으로 따져야 한다. 이 일로 인해 자녀들의 등교 거부 운동을 벌일 수도 있다는 일부 종교인의 발상은 종교적 단견이

자 심각한 학습권 침해가 됨을 고려해 주었으면 한다. 김학동(경기 여흥초 교장)

● 역사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신화적 인물의 동상을 공공장소에 세우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 주장하며 단군상의 목을 베어낸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로 인해 우리 한민족의 존립 자체가 흔들릴까봐 우려된다. 우리가 오늘 존재하고 있는 것은 단군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우리의 조상이 있었기 때문이다. 단군상을 단순한 위상상배로 보기전에 민족을 먼저 생각했더라면 이번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역사와 문화, 사회에 대한 이해없이 오로지 특정 종교의 특정한 교리만을 제대로 삼아 행동한 결과인 것이다. 이같은 사건의 근본적 원인은 다종교 사회구조에서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종교단체와 그 지도자들이 오로지 경전에만 의존해 정제되지 않은 논리로 종교인들을 잘못 인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견해를 버리고 우리민족의 조상으로서 단군과 단군사상을 재조명해 다시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조돈규(경향신문 수사국 경정)>

'단군상' 위상시각은 편견 '민족얼 찾기' 운동 확산돼야

신개발품 시·연·쑥·뜸·기

난치병에서 피부미용까지

쑥뜸의 효능은 3,000년간 인정받았습니다.

피부에 전혀 손상없이 가정에서 간단하게 뜸 수 있습니다. 한의사 대체의학 연구원이 상담해 드립니다.

● 프랑스의 슈미트 의학박사는 현대 의학상 외과수술의에는 쑥뜸법으로 무슨 병이든 전부 치료할 수 있다고 격찬하였다.

● 독일의 헤리 베르르 슈미트 박사는 쑥뜸법은 동양 의학에서는 과거의 유물일지 모르나 서유럽에서는 새로운 의학이며 장래성 있는 의학이다.

● 일본의 원지명태양 의학박사는 쑥뜸의 새로운 연구는 의학 최종목적인 치료의학과 예방의학의 양면에서 동시에 해결해 해준다고 하였다.

● 쑥뜸은 한곳이라도 증지 않은 분은 본사 제품 꼭한번 사용하세요.

● '시연 쑥뜸기'는 아픈 곳이 곧 치료됩니다.

● 각종질병 쑥뜸의 효능

만성피로	정력강화	고혈압
건비통	신경통	저혈압
간장병	당뇨병	요통
전립선	조루증	냉증
피부병	생리통	위장병

만병의 원인은 피가 탁하고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서 오는 것인데 쑥뜸을 뜨면 백혈구와 적혈구가 증가하여 피가 맑아지고 혈액순환이 잘되어 병이 치유됩니다.

■ 판매원 여래치신자연식품회사 ■ 제조원 : 도훈건강
대구광역시 달서구 본동 1138
053-628-9145 / H.P 011-808-8880
가격 : 200,000원(1set)
암축쑥 1개월분(50,000원), 쑥뜸기일체, 안내책자(16,000원) 포함
입금계좌: 대구은행 161-07-412768-001 대구여래한방

관광을 겸한 방생 어디가 좋을까!

기왕이면 경지도 좋고 물도 가득차 있는 곳이면 더욱 좋겠지요.

신비의 마이산 탐사
탐영제방생

한국의 불가사의 만불탐의 오묘한 신비, 이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있는 기도 도량 삼진강 맑은 물의 탐영제 방생기도

찾아오시는길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전주 40분 M 마이산 광주

진안 마이산 탐사
전화(0655)33-2900,0303
32-0652,0072

관광과 방생을 한곳에서